

중국인 한국어 교원의 민족 구성을 고려한 재교육 방안 연구

-절강 지역 교사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김영근 · 임충인*

Abstract

Kim, Yeong-Geun & Ren, Cong-Yin. 2015. 6. 30. A Study on Re-training Methods for Chinese Korean Language Teachers, Considering the Racial Composition: Based on the Need Analysis of Jhejiang Region's Teachers.

Bilingual Research 59, 25-51. This study aims to let Chinese teachers teaching Korean to improve their teaching skills more effectively by providing them a re-training program.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hinese teachers teaching Korean language in Zhejiang, China. The survey especially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rate, merits and demerits of the re-training program, and demand of the program.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the curriculum of existing re-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and designs a new re-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the teaching quality of the Chinese teachers teaching Korean language.

Among these teachers, ethnic Korean teachers living in China hold an intermediary position since they have bo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y should be approached as the different ways. Hence, the study suggests the re-training program it is divided as the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he require curriculum both ethnic Korean teachers and Chinese teachers. And the second part is the curriculum for ethnic Korean teachers living in China, focusing on teaching methods, contemporary Korean culture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nguage and the languag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use. The study also separately suggests a re-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from Han Chinese(and other races in

* 김영근(제1저자), 임충인(제2저자)

China) focusing on studying the advanced Korean language and traditional culture, and comparing both Korean and Chinese cultures.(Kyunghee Universit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한국어 교육), Korean Language teachers(한국어 교원), Re-training(재교육), Racial Composition(민족 구성), Ethnic Korean living in China(조선족), Han Chinese(한족)

1. 서론

1992년 8월 24일 한중국교정상화 이후로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격상되었으며 양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 학습자 및 교육 기관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¹⁾

한국어 학습자와 관련 학과의 증가 속도에 맞춰 한국어 교원²⁾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원 충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원의 처우 문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원 자격의 문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관련 대학원 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⁴⁾ 이를 위해서는 교원 재교육이

1) 2013년 현재 중국에는 총 215개의 한국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4년제 대학은 107개, 3년제 대학은 108개이다(서영영, 2013:211).

2) 본고에서는 교사, 교수,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를 포괄하는 의미로 ‘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중국 내 박사학위 개설 대학은 7개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박사학위 소지 교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교원 수급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학술 연구 능력 부족으로도 이어진다(서영영, 2013:218).

4) 서상영(2011:26)은 “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의 능력은 지속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질 함양과 역량 개발의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continuing teacher education)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

필수적이나, 중국 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⁵⁾

이에 중국 내에서는 기존 교수 방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徐錦波(2011)는 수업 방식이 단조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어 수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번역식 수업은 교원과 교과서가 중심이 되는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이 듣기, 말하기 등 실제 활용능력을 키우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한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이 보다 흥미롭고 유용한 한국어 수업을 이끌어 내려면 다양한 수업 진행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婁小琴(2008)은 조선족 교원과 한족 교원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선족 교원의 경우 조선어⁶⁾와 차이가 나는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 그리고 일부 문법에 대해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한족 교원은 한국어 자체와 한국어 교수법 및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婁小琴(2010)은 원어민 교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어민 교원이 한

다. 이는 비단 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 5) 劉杰(2012:182)는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젊은 교원에게 계속 학위 공부를 시킨다.

둘째, 국내에서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과목 개설이나 교수 방법 면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

셋째, 해외 연수를 보낸다.

넷째, 실력 높은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국내 교사들에게 시범을 보여준다.

이 중 학위 과정은 장기간 교원 공백이 불가피하며 원어민 교사 초빙은 일회성에 그칠 확률이 높다. 해외 연수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학교 간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 6) 이 때의 조선어는 한국의 표준어 또는 북한의 문화어와 달리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의미한다. 본고 역시 조선어를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규정하여 사용한다.

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원어민 교원이 중국의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국인 교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일관된 수업을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원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통해 중국 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문제는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⁷⁾ 중국 교원은 원어민, 현지인, 조선족 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족은 국적에서는 현지인, 언어 사용에서는 원어민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원어민이 사용하는 용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사 재교육 역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교원 재교육 관련 연구 중 이처럼 교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이에 맞게 구성한 교원 재교육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정희·김중섭(2006)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국제 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위탁을 받아 14일간 실시한 ‘중국 한국어 교육자 한국어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과 함께 73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국적과 민족에 따라 커리큘럼을 세분화하지는 않았다.⁸⁾

7) 이는 비단 중국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최은규·안경화(2003:324)는 연수 참가 국가별로 학습자 및 교사의 특성, 교육 환경 등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점이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8) 그러나 연수생 73명 중 한국인은 2명(2003년 1명, 2005년 1명)에 불과하며, 56명(76.7%)이 조선족이라는 점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 출신의 교수자는 국어학 및 언어학 등 이론 강의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며 한족 출신의 교수자는 교수 방법에 대한 강의 및 토론, 실제 수업 참관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변인 ‘민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한국학’과 ‘언어학’”(이정희·김중섭, 2006:246)이라는 언급을 통해 민족과 연수생의 요구에 대한 가설과 상관분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족에 따라 커리큘럼을 세분화할 때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현화(2002)는 2002년 7월 1일부터 5일 동안 사할린 유즈노 시에서 진행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해외파견 한국어 교사 재연수에 참가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분석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교사를 세 부류로 나누었으나, 대상자가 모두 고려인이라는 점에서 역시 커리큘럼의 세분화로 이어지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외의 연구 역시 민족 특성을 고려하여 재교육 내용이나 대상을 세분화하는 단계로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박지순·박정아(2013)는 국내외 한국어 교원 연수 현황을 분석하고 교원의 재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이진경(2014)은 7개 정부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현직 한국어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유하(2007), 박지순·최진희(2010), 서상영(2011), 최은규(2013) 등은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교원의 민족 구성에 따라 재교육 내용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절강 지역 내 중국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재교육 경험자 및 학과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재교육 경험 및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내용을 공통 과목과 조선족 중점 교육 과목, 한족 중점 교육 과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절강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재교육 관련 요구분석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 교원, 특히 중국인 한국어 교원의 재교육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절강 지역의 한국어학과 및 교원 현황을 제시하고 각 학과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절강 지역을 표본으로 삼

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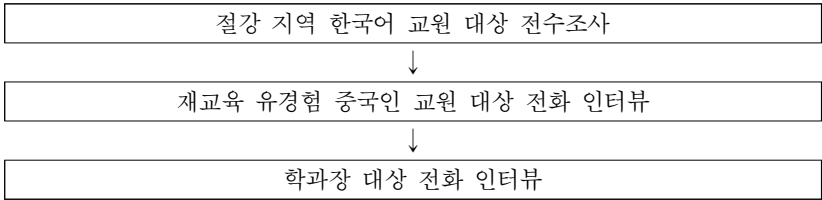
첫째, 절강 지역은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주변부에 위치한다. 서영영(2013:218)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과 연구는 여전히 수도권과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중국 남부 지역인 절강 지역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지원과 연구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주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절강 지역은 강소 지역과 인접해 있다. 서영영(2013:216)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투자한 곳은 강소 지역이다. 강소성 상무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 한국과 강소성의 수출입 무역액이 380억 달러에 이르며 한중 무역 총액의 1/4을 차지한다. 또한 강소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4200개이고 실제 투자액이 9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강소 지역 내 한국어학과는 9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소 지역과 함께 강소 지역에 인접한 절강 지역에서의 한국어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절강 지역은 한국어 교원의 수와 교원의 한국어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 안성호(2014:179)는 절강 지역에서 한국어학과 건설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어 교수의 부족 및 교수진의 한국어 교육 경험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절강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절강 지역 내 한국어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을 실시하여 기관 및 교원 현황, 재교육 유무 및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후 재교육 유경험 교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원이 경험한 재교육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고의 연구 목적에 보다 부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 대상은 중국인 교원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과장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 재교육에 관한 입장을 살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요구분석 절차



2.1. 한국어 전공 및 교원 현황

절강 지역에는 총 6개 대학에 한국어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4개 대학은 일반대학교, 2개 대학은 직업대학교이다.⁹⁾ 수업은 전공의 경우 주당 4시수, 총 16주로 이루어지거나 주당 8시수, 총 8주로 진행되며 1시수는 45분간 이루어진다. 제2전공(부전공)의 경우는 주당 4시수,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대부분 북경대학교에서 2002년에 출간한 『표준한국어(標準韓國語)』를 사용하고 있다.

신입생의 90~95%는 절강 지역 출신이며 5~10%는 주변 지역 출신이다. 일반대학교의 경우, 항주사범대학교는 2014년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으며¹⁰⁾,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수인대학교는 절강성에서 최초로 한국어과를 개설했으며 현재 부전공 학생과 ‘2+2’ 과정¹¹⁾ 학생을 포함하여 300명가량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월수외국어대학교는 2014년 신입생이 250명에 달하며, 총 재학생은 600명 이상이다. 절강외국어대학교는 2014년에 한국어과를 개설하여 24명의 신입생이 재학 중이다.

9) 직업대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위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일반대학교와 교육 목표가 상이하다.

10) 안성호(2014:178~179)는 항주사범대학교의 학과 설립 시기를 2013년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항주사범대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였으며 2014학년도 1학기에 첫 번째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이에 본고는 항주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개설 시기를 2014년으로 기재한다.

11) 2년은 중국에서, 2년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다.

직업대학교의 경우, 절강관광기술직업대학교는 관광한국어와 응용한국어로 세분화하여 두 개의 전공을 개설하였으며, 재학생은 150여 명이다. 3년제 과정과 4년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4년제 과정의 경우 중국에서 2년, 자매결연 학교인 한국 순천향대학교에서 2년의 과정을 거친다. Ningbo 직업기술전문대학교는 한국어 관련 전공 재학생이 200여 명에 이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이 많다.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6개 대학의 학제 및 개설과목, 신입생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절강 지역 한국어학과 현황¹²⁾

학교명	학제	개설 과목	신입생 (명)
월수 외국어대	4년 /유학 준비반	한국어 개론, 한국어 듣기·말하기·쓰기·문법, 한국어 글쓰기, 한국어 영상문화, 한국 문학 읽기, 한국어 통역, 한국어 종합능력, 국제 상무 한국어	250
항주 사범대	4년	초·중·고급 한국어, 한국어 읽기, 한국어 대화, 한국어 통역, 한국어 문학 개론, 한국어 문학 읽기, 한국어 문법, 통역학, 문학 통역학	30
절강 외국어대	4년	초·중·고급 한국어, 한국어 듣기·말하기, 한국어 글쓰기, 한국 문화	24
수인대	3년/4년/ 유학 준비반	초·중·고급 한국어, 한국어 듣기·말하기·읽기, 한국어 통역, 한국어 번역, 한국 문학,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어 상무 대화, 한국어 인용 쓰기, 상무 한국어	70
절강 관광 직업대	3년/4년/ 직업 교육	한국어 개론, 초·중·고급 한국어, 한국어 듣기·말하기, 한국어 인용 쓰기, 한중 통역, 한국 사회, 한국 문화, 국제 상무 한국어, 관광 한국어	40
닝보 직업 기술대	3년/ 직업 교육	초·중·고급 한국어, 한국어 듣기, 한국어 인용 쓰기, 한중 통역학, 한국어 대화, 한국 사회, 국제 사무 한국어, 한국 영상 문화	70

이 중 중국 국적의 교원을 조선족과 한족 중심의 기타 중국인으로 나

12) 중국은 9월에 1학기, 2~3월에 2학기를 시작한다. 본 조사는 2014학년도 1 학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학과 교원 구성 현황¹³⁾

학교명	교원 수(명)			
	한국인	조선족	한족	총
월수의국어대	8	4	17	29
항주사범대	0	1	2	3
절강외국어대	0	1	2	3
수인대	5	3	7	15
절강관광직업대	1	0	5	6
닝보직업기술대	1	0	3	4

13)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 현황은 안성호(2014:178~179)의 현황과 상이하다. 이는 조사 기준 외에 미등록 교사 포함 여부에 기인한다. 보고는 중국 교사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중국 교육구의 인증을 받아 등록된 교사만 현황에 집계하였다. 안성호(2014:178~179)에서 제시한 절강 지역 한국어학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년, 명)

학교명칭	학과 개설년도	학제	재직 교수	원어민 강사	총 학생수	비고
월수의국어대	2000	3	33	8	29	3년 학제 학생모집 종결
	2008	4			934	
수인대	2003	3	6	3	93	3년, 4년 학제 병행
	2012	4			58	
절강관광직업대	2000	3	3	3	117	
항주사범대	2013	4	3	1	23	
절강외국어대	2014	4	3		25	학생모집계획수
닝보직업기술대	2006	3	3	3	125	
가흥대학	2007	4	11	2	260	일본어학과에서 한국어교육 병행

2014년 4월 현재 통계 데이터

또한 닝보직업기술대 학과장과 수인대 교수 1명은 월수의국어대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다.

2.2. 기초 설문

절강 지역 내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재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월수외국어대 교원 20명, 수인대 16명¹⁴⁾, 항주사범대 및 절강외국어대 각 3명, 절강관광직업대 6명, Ningbo 직업기술대 4명이 본 요구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요구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교원 기본정보: 연령, 성별, 국적¹⁵⁾, 학력, 경력, 교원자격 취득 여부 등
- (2) 기관정보: 한국어 전공·부전공·교양 개설 여부, 학생 수, 교원 수 등
- (3) 교사 재교육 경험 유무: 경험 유무, 기간, 교육 내용, 만족도 등
- (4) 교사 재교육 희망 여부: 희망 여부, 기간, 장소,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¹⁶⁾

조사 참여자 중 박사는 5명(9.6%), 석사는 19명(36.5%)이며 학사는 28명(53.8%)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은 1급 취득자가 2명(3.8%), 2급 취득자가 15명(28.8%)이며 3급 취득자가 8명(15.4%)이다. 전체 참여 인원 중 51.9%인 27명은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이다.¹⁷⁾

-
- 14) 월수외국어대학교의 경우 겸임교수 2명, 출산휴가 1명, 대련외국어대학교 연구수 1명, 해외 학술교류 참가자 4명이 제외되었으며 수인대학교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지도하는 일본어학과 소속 교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 15) 국적은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중국인의 경우 조선족 여부를 다시 조사하였다.
 - 16) 교사 재교육 만족도 및 희망 여부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교육 기간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1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일부 교원은 중국에서 비교적 크게 운영되는 ‘신동방’이라는 언어교육기관(학원)에서 수여하는 한국어교수능력시험과 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인 교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 40명 중 남성이 19명, 여성이 21명이며 20대와 30대의 젊은 교원이 다수이다. 대부분 경력 5년 미만의 신입 강사이나 1명을 제외한 39명이 TOPIK 5-6급 취득자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절강 지역 한국어학과 중국인 교원 현황

항목	인원(명)
성별	① 남성(19) ② 여성(21)
연령	① 20대(17) ② 30대(15) ③ 40대(4) ④ 50대 이상(4)
TOPIK	① 없음(1) ② 1-2급(0) ③ 3-4급(0) ④ 5-6급(39)
경력 ¹⁸⁾	① 0-3년(15) ② 3-5년(13) ③ 5-7년(4) ④ 7-10년(2) ⑤ 10년 이상(5)

조사 결과 40명 전원이 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조금 필요 1명, 매우 필요 39명)하였으며, 3주 이상(3-4주 7명, 4주 이상 33명)의 재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족은 전원이 4주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 대상은 전원이 5년 이내의 경력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3년 이내 21명, 3-5년 20명, 1명은 복수 응답) 교육 장소는 한국을 위한 교원이 29명으로 중국(8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4명은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교육 방식은 한족 교원과 조선족 교원이 다소 상이했다. 한족은 ‘매체 활용 - 체험학습 - 발표 및 피드백 - 강의’ 순인 반면 조선족은 ‘체험학습 - 매체 활용 / 발표 및 피드백 - 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을 가장 선호한 교원은 없었다.

재교육 내용의 경우 영역별 교수법, 문화 교육, 참관, 시강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다소 낮게 부여하는 경향이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게 드러났다.¹⁹⁾

18) 미응답 1명.

19) 기능별 교수(듣기/말하기/읽기/쓰기/발음/어휘/문법)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80% 이상이었으며 참관의 경우 40명 중 39명, 시강의 경우 40

2.3. 재교육 유경험 교원 대상 조사

기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 장단점 및 유용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재교육 유경험 응답자 14명 중 9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월수의국어대 3명, 수인대 3명, 항주사범대 1명, 절강외국어대 1명, 절강관광직업대 1명이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재교육 유경험 교원 대상 조사 결과

항목	소속		
	절강관광직업대	절강외대	항주사범대
전공	학부: 응용언어학 (절강관광직업대) 석사: 국어학(우송대)	학부·석사: 한국어(북경외대)	학부·석사·박사: 중어중문(북경외대)
경력	4년	10년	8년
재교육 기관	우송대	북경외대	북경외대
재교육 기간	2년	4개월	석사과정 전체 ²⁰⁾
재교육 방식	국어학 석사과정	대학원 강의	교사자격증 시험대비 특설과정 ²¹⁾
재교육 내용	국어학 석사과정 강의	문법론, 어휘론, 음운론	한국어개론, 문법론, 어휘론, 민속학, 번역학, 국어사 등
만족도	만족	만족	만족
불만족 부분	없음	없음	실습 수업이 없는 점
학생 지도에 끼친 영향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크다.
비고	학위 공부	교사자격증 취득 ²²⁾ 을 위한 대학원 수업 청강	특설과정
항목	소속		
	월수의대 1	월수의대 2	월수의대 3
전공	학부·석사: 교육학(연변대)	학부·석사: 한국어(연변대)	학부·석사: 한국어(연변대)
경력	8년	11년	3년

명 전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경우 17명, 현대 문화의 경우 21명만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재교육 기관	우송대	연변대	대련외대
재교육 기간	1년	1년	6개월
재교육 방식	청강	석사과정 청강	참관, 시강
재교육 내용	한국 국어국문학과 수업 청강, 중국 유학생 대상 한국민속문화행사 다수 참여	한국어 음운론, 어휘론, 한국사 등	참관: 한국어 응용번역, 한국어어응용 시강: 한국어 듣기(2회)
만족도	괜찮음	만족	괜찮음
불만족 부분	없음	없음	① 시강 횟수가 적다. ②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학생 지도에 끼친 영향	그럭저럭 괜찮음	매우 유용	도움이 됨
비고	국문과 수업 청강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석사 수업 청강	자매학교 한국어 수업 참관
항목	소속		
	수인대 1	수인대 2	수인대 3
전공	학부: 한국어(수인대)	학부·석사: 한국어(대련외대) 박사: 한국어교육(충남대)	학부: 한국어
경력	2년	12년	3년
재교육 기관	세한대	충남대	대련외대
재교육 기간	4개월	박사과정	2개월
재교육 방식	참관, 청강, 시강	박사과정 수업	교사자격증 시험 대비반
재교육 내용	참관: 중급, 고급 한국어 청강: 한국어개론, 국어사(학부 강의) 시강: 중급 한국어	박사과정 수업	번역, 문법 수업
만족도	매우 만족	미응답	그럭저럭 괜찮음
불만족 부분	비즈니스 수업 참관을 원했으나 강의 미개설	미응답	철저한 시험 대비
학생 지도에 끼친 영향	도움이 크다.	미응답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비고	어학당 수업 참관, 국문과 수업 청강	학위 취득 목적	교사자격증 시험 대비 특설 과정

재교육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으로 대부분 경력의 단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장기 재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1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학위 취득을 위한 석·박사과정을 재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교육을 받은 교원 대부분이 재교육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물론 재교육이 추후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점은 재교육이 교사의 자질 향상 및 수업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재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만족한 분야와 불만족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면 듣기 교수법, 말하기 교수법, 발음 교수법, 문법 교수법, 참관 등에 비교적 만족했고, 문학, 문화, 쓰기, 전문적 어휘 등은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강의 기회가 너무 적고, 학생의 피드백을 들을 수 없는 점도 아쉬워했다. 비즈니스 한국어가 개설되지 않아 참관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²³⁾

2.4. 학과장 대상 요구분석

교사 재교육에 대한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인식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

-
- 20)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석·박사과정을 재교육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재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 21) 특설과정은 과목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2시간 과정과 48시간 과정이 있다. 수강신청 인원이 일정 인원을 넘어야 개설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22) 북경외대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교원자격 발급 기관이다.
 - 23)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학 연구 및 한국어 교육이 급부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에 유리하다는 현실적 동기가 학문적 동기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중국인에게 ‘직업적 동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김중섭, 2014:30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기 위해 4개 일반대(월수외국어대, 항주사범대, 절강외국어대, 수인대)의 학과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학과장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²⁴⁾ 4명의 학과장 중 두 명은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 명은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을 경험하였으나 한 명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

학과 내 중국인 한국어 교원의 경우, 조선족 교원은 학부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네 개 학교 모두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교원이 존재했으며, 그 중 한 개의 대학은 교원 전원이 한국 유학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현지에서 생활하며 보다 생생한 한국어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추후 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개 대학 모두 학과 발전을 위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간과 장소, 재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상이했다. 4개 대학 학과장 대상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재교육에 대한 요구분석과는 별도로, 월수외국어대학교와 Ningbo 직업기술대학교의 학과장이 절강 지역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중국 교원과 한국 교원의 교육 이념과 패턴이 너무 달라서 서로 진도를 맞춰서 나가기가 힘들고 학생들이 제대로 습득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 (2) 오래된 교재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문화적 배경 설명 및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 새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려다 보면 수업 시수나 교원의 교재 소화 능력 등의 문제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 (3) 실질적인 쓰기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
- (4) 한국어학 출신인 교원은 비즈니스 한국어 등 실무적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7> 학과장 대상 요구분석²⁵⁾

항목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학과장 본인의 한국어학연수 경험	없음	어학당, 학부, 석사	단기 어학연수	학부, 석사
한국에서의 어학연수 및 한국어 학습 미경험 교원 여부	전원	있음	있음	있음
학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원 여부	조선족 1인 (교육학)	조선족 1인(중문), 한족 1인(경영)	조선족 1인 (언어교육)	조선족 2인 (중문, 교육학)
교사 재교육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장소/기간/내용	한국 /6-12개월 /교수법, 민속 문화, 언어 역사	한국 /현재 형태 유지 ²⁶⁾	중국 /1-2개월 /비즈니스 한국어, 통번역 등 실용적인 내용	단기 재교육과 장기 재교육으로 구분 ²⁷⁾

3. 기존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커리큘럼 분석

교원과 학과장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어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앞서, 기존 한국어 교원 재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구성

-
- 25) 학과(학부) 내 교원에 관한 사항은 교원 각자에게 설문을 실시한 후 학과장을 통해 설문 미참여 인원까지 포함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 중 학과장 면담 내용만을 제시한다.
 - 26) 해당 대학은 학과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때 교원이 함께 파견되어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을 참관한다. 해당 학과 학과장의 경우, 한국에서의 재교육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교류 방식을 유지하며 학교 간 교류도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 27) 단기의 경우 장소는 무관하며 방학에 4주간 연설, 실무 쓰기, 민속 문화 등 실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장기의 경우는 한국에서 3~6개월간 진행하기를 원하며 효과가 좋은 경우 2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언어 지식, 언어 교수법 등을 주제로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의 기틀로 삼을 필요가 있다.

3.1. 중국 한국어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위탁을 받아 경희대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 한국어 교육자 연수는 중국 대학 한국어 교육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를 한국으로 초청,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교수법 이론과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²⁸⁾ 2주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관련 25개 강좌와 한국어 수업 참관 2회, 워크숍 1회, 종합 평가 토론 1회, 현장학습 2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설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이정희·김중섭, 2006:236~237).

- 1) 국어학 및 언어학 영역(80분 9과목)
: 한국어 의미론,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어휘론, 어원론, 표기법 지도, 표준발음 지도, 학교 문법론
- 2) 한국어 교육학 영역(80분 5과목)
: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능력평가론, 한국어 오류 분석의 실제,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
- 3) 한국어 교수법(80분 9과목)
: 한국어 표현, 이해, 발음, 문법, 문화 교수법, 웹기반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문학, 어휘 교수법,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
- 4) 한국학 강의(80분 2과목)
: 한국의 경제, 역사
- 5) 토론 및 참관
: 교실 수업 참관(50분 3시간), 종합 토론회(2시간)

28) 한국국제교류재단 누리집(www.kf.or.kr) 참조.

6) 현장 교육

: 주요 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시찰, 현대 문화 감상²⁹⁾

3.2.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국립국어원은 국외 한국어 전문가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연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9월 29일부터 2주간 실시한 ‘2013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의 주요 개설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³⁰⁾

1) 국어학 및 언어학 영역(90분 5시간)

: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어문규정, 대조언어학

29) 프로그램 참가자가 제기한 개선 방향은 향후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과 보완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 참가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이정희·김중섭, 2006:247)

1. 중국-한국 교수간의 교류와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다.
2. 중국 현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강의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교수법 제시 및 평가, 교재)
3. 강의보다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 체험 등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4. 강의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연수생 스스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수업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각자 필요로 하는 분야에 가서 좀 깊게 있게 강의를 듣는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6. 한국어교수법,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7. 참관수업을 더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
8. 연수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의 대학에서도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한다.

30) 연수 자료집 일정에 제시된 교육 항목을 3.1.에서 제시한 6개의 영역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2014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배재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 2) 한국어 교육학 영역(90분 7시간)
 - : 한국어 문화 교육론, 한국어 평가론, 웹 기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학 개론
- 3) 한국어 교수법(90분 5시간)
 - : 한국어 쓰기 교수법,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읽기 교수법, 한국어 듣기 교수법,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 4) 한국학 강의(60분 특강 1시간, 90분 3시간)
 - : 한국어와 한국 문화(특강), 한류와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한국의 역사
- 5) 토론 및 참관
 - : 한국어 교실 참관(50분 3시간), 지역별 간담회(90분), 지역별 발표와 종합 토론(3시간)
- 6) 현장 교육
 - : 경주/포항 답사, 남산 한옥마을 견학 및 문화 체험(4시간), 경북 궁 및 난타공연 관람(5시간)

3.3.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소양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200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이 참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선족 대상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동포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의 교사가 연수 대상이며 조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많이 소멸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교사의 한국어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점³¹⁾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31) 2014년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 따라 3개 반으로 분반을 하여 하루 네 시간 한국어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일정을 간략히 분석하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참관을 진행하며 3개 반으로 나누어 한국어 능력을 개발하고 한국어학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 학습의 비중이 높고, 독도 문제나 통일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 참관이나 강의안 작성 및 실습, 모의수업 등이 진행된다는 점은 해당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원 재교육과 별개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4. 민족 구성을 고려한 중국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방안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방안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이 전무한 교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교원 다수가 한국에서의 재교육을 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교육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이외에도 교원의 한국 경험은 최근의 한국 상황과 문화를 교원 체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게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의 재교육을 원하는 교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장기 연수는 교원의 현장 공백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원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절강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방학을 이용한 4주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방학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은 기존 재교육에 대한 교원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재교육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기존 재교육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1장에서 龔小琴(2008:88~91)이 조선족 교원과 한족 교원의 문제점을 나누어 기술한 바

와 2장의 조사 내용을 통해 드러난 바를 통해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내용을 공통 교과목과 조선족 대상 보충 교과목, 한족 대상 보충 교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4.1. 공통 교과목

재교육 참여 교원과 미참여 교원 모두 교수법과 참관 등 기존의 한국어 재교육 내용에 상당히 만족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다만 기존 재교육 참여 교원이 제기한 문제 중 시강의 기회가 지나치게 적고 학생의 피드백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목적 학습자가 다수를 이루는 직업대학교에서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 제시한 기존 재교육 내용과 중국인 교원 및 학과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중국인 한국어 교원 대상 공통 교과목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1) 국어학 및 언어학 영역

: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문법론

2) 한국어 교육학 영역

: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평가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문화 교육론

3) 한국어 교수법

: 한국어 듣기 교수법,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한국어 읽기 교수법,

한국어 쓰기 교수법, 웹 기반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문학,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

4) 한국학 강의

: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류와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한국의 역사, 한국의 경제

5) 토론, 참관, 실습

: 교실 수업 참관, 한국어 교육 실습, 종합 토론

6) 비즈니스 한국어

: 직군별 어휘, 실무 글쓰기(이력서, 자기소개서, 보고서 등), 기업 문화 특강

7) 현장 교육

: 주요 문화 유적지 견학 및 답사, 산업시찰, 공연 관람

4.2. 조선족 교원 대상 보충 교육 교과목

婁小琴(2008:88~91)은 조선어와 차이가 나는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 그리고 일부 문법을 조선족이 교육받아야 할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절강 지역의 교원 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족 교원이 조선어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해 올바른 한국어를 반드시 익혀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중국인 교원이 문법번역식 교육을 통해 문법과 어휘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한국인 교원에 의해 말하기 교육과 발음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 비추어 볼 때 절강 지역의 한국어 교원은 수가 매우 부족하며, 심지어 항주사범대나 절강외국어대와 같이 한국인 교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대학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학에서는 조선족 교원이 한국인 교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조선족 교원은 조선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올바른 발음과 억양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재교육을 통해 조선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올

바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될 경우, 조선족 한국어 교사가 통번역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통번역을 위해서는 양측의 언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중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인 교원이나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족 교원에 비해 이중 언어 화자인 조선족 교원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통하기에 통번역 또한 용이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 교육을 담당한다면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과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원이 대부분 조선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족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교원 대상 조사 중 조선족 교원의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강조되지 않은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족 교원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조선족 교원은 한국 전통 문화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할 이들이 조선족 교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조선족 교원을 대상으로 보다 면밀히 진행되어야 할 재교육 내용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1) 대조언어학 - 조선어와 한국어

: 조선어와 한국어의 발음 대조, 조선어와 한국어의 억양 대조, 조선어와 한국어의 문법 대조, 조선어와 한국어의 어휘 대조

2) 한국어 통번역

: 한국어 통역, 한국어 번역

3) 한국어 교수법

: 한국어 교수법 일반, 기능별 교수법 특강, 한국 전통문화 교수법

4.3. 한족 교원 대상 보충 교육 교과목

한족 교원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가장 유사한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원의 다수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했기에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교원이나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교원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婁小琴(2008:88~91) 역시 한족 교원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영역으로 한국어 자체와 한국어 교수법 및 한국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³²⁾

이러한 영역들 중 한국 문화의 경우, 중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이를 중국 문화와 비교한다면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형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습자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의미 있는 문화 교육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족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히 진행되어야 할 재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한국어 구사 능력 배양

: 고급 한국어 문법, 고급 한국어 듣기, 고급 한국어 말하기, 고급 한국어 읽기, 고급 한국어 쓰기

2) 문화 비교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문화

: 상호문화주의 특강, 한중 전통문화 비교, 한중 가족문화 비교, 한중 기업문화 비교, 중국인이 바라본 한류와 한국의 현대 문화

32) 2장의 요구분석 결과를 통해 한족 교원의 절대 다수가 한국어 전공자임을 확인하였고 공통 교과목에 한국어 교수법을 다양하게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婁小琴(2008:88~91)의 제안 중 한국어 교수법은 제외하였다.

5. 결론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 기관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한국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언어 교육을 하기에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또한 교사의 강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와 교재 개발 등도 미진하다. 이는 자칫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열기의 감소나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신규 교사의 충원과 함께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절강 지역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재교육 경험과 재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재교육 유경험자와 학과장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재교육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바와 학과를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재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기존 재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아 중국인 한국어 교원 대상 재교육 내용을 필수 교과목과 조선족 교원 대상 보충 교육 교과목, 한족 교원 대상 보충 교육 교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한국어 학습자의 다수를 중국인 학습자가 차지하며 해외 학습자 중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인 교원의 자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가 중국인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어 중국 내 한국어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 문헌>

강현화(2002). 해외 한국어 교사 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논의, <한국어교육> 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쪽~38쪽.

국립국어원(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연수 자료집.

김중섭(2014). 한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도서출판 하우.

박지순·박정아(2013).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및 제언, <이중언어학> 52호, 이중언어학회.181쪽~220쪽.

박지순·최진희(2010).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어교육> 21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5쪽~76쪽.

서상영(2011). 한국어교원의 현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내 대학 한국어교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영(2013). 중국의 한국학과 의 현황과 과제,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3년 11월, 중국학연구회. 209쪽~233쪽.

안성호(2014). 중국 절강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한국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77쪽~183쪽.

이정희·김중섭(2006). 중국 대학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31호, 이중언어학회. 227쪽~251쪽.

이진경(2014). 한국어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유하(2007). 대학기관의 한국어 교사 재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발달단계 측정과 동료장학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규(2013).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사 재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어문연구> 14집, 한국어어문교육연구회. 443쪽~475쪽.

최은규·안경화(2003).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일본 고교 한국어 교사 연수의 경우-, <한국어교육> 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3쪽~341쪽.

婁小琴(2008). 長三角地區高職韓語教育的現狀及對策, <浙江旅游職業學院學報> 2008年 4卷 4基, 浙江旅游職業學院. 88~91.

婁小琴(2010). 對中外合作辦學項目中高職韓語課堂教學改革的思考——以浙江旅游職業學院中韓合作辦學項目為例, <科技信息> 2010年 36基, 山東省技術開發服務中心. 181.

劉杰(2012 ㄱ). 高職韓語教學過程中如何突出職業教育特色, <科技视界> 2012年 27基, 上海市科普作家協會. 182~183.

劉杰(2012 ㄴ). 對高職韓語專業改革與發展的思考, <科技信息> 2012年 29基, 山東省技術開發服務中心. 292.

徐錦波(2011). 我院第二外語韓語教學存在的問題及改革建議, <青年文學家> 2011年 21基, 黑龍江省文學藝術界聯合會. 72~73.

周若玮(2014). 從韓語專業就業現狀探討韓語專業課程設置, <考試周刊>, 2014年 93基, 吉林省興林報刊發展中心. 83.

<홈페이지>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재외동포재단(www.okf.or.kr)

한국국제교류재단(www.kf.or.kr)

김영근(Kim, Yeong-Geun)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961-0081

전자우편: kimy@khu.ac.kr

임충인(Ren, Cong-Yin)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961-0702

전자우편: rencongyinhu@hotmail.com

접수일자: 2015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6월 6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7일